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중국에 미친 영향

李 完 範*

1. 서 론
2. 중국의 전쟁계획 참여와 물적 지원
3. 중국의 참전
4. 미-중 대리전의 전개
5. 전쟁의 정치적 종결: 한반도 휴전체제의 성립
6. 맺 음 말: 중국에 미친 영향

1. 서 론

중국의 최고지도자 毛澤東은 1950년 10월 6·25전쟁에 참전하기 전부터 김일성-스탈린과 함께 전쟁 개전 과정에 개입했으며 병력을 지원했다. 또한 중국은 1950년 10월 전쟁 참여 후부터 1953년 7월 휴전에 이르기까지 6·25 전쟁의 전개과정과 종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중국의 참전과

중국에 미친 영향은 6·25전쟁 이해의 중심적 테마들 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중국 참전전 북한-중국 간 전쟁 개전 논의과정에서부터 참전 그 자체와 영향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드문 편이다. 우선 연구 현황에 대해 개 관하고자 한다.

중국 참전에 대한 서방학계의 학문적인 연구의 효시는 Allen S.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이다. 이 책은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중국 참전을 ‘자위적’인 것으로 평가해 그 때까지만 해도 호전적이며 모험주의적인 나라로 인식되던 중국의 대외행태가 신중한 판단에서 나온 것임을 주장했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자 중국도 압록강을 넘었음을 강조했다며 중국 참전의 이유는 동북지역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여 개입의 배후에 동기(motivation behind intervention)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북한-소련 협의설을 주장했다.

김학준 교수는 1970년 미국의 Kent State University에서 중국과 한국전 발발과의 관련성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는데 이는 1985년 한국연구원에서 펴낸 *The Sino-North Korean Relations, 1945-1984*의 제1부 “The Korean War and China: Sino-North Korean Relations befor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에 증보되어 있다. 이 논문의 핵심논지는 James Cotton과 Ian Nearly가 공편한 *The Korean War in Histo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9)의 한 장인 “China’s Non-involvement in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A Critical Re-assessment”에 실려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연구의 1970년대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적해야 할 인사는 박두복(朴斗福) 교수이다. 그는 중화민국 문화대학에서 취득한 정치학박사 논문을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라는 제목으로 臺北의 黎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明文化事業公司에서 1975년에 출간했다. 그는 중공과 모택동에 대한 스탈린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이 중국이 장래를 위해 긴급하다는 판단에서 참전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의 중요 부분은 한국과 미국 학계에 연속적으로 공간되었다.¹⁾ 이 책에서 그는 중국 참전의 외적 원인(중공과 毛澤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과 내적 원인(중국의 안보, 정치적 고려) 등을 분석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다음과 같은 중국 자료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伍修權의 外交回顧錄(1950. 1~1958. 10),” 陳維利(譯), 『中蘇研究』 제8권 1호(1984년 3월), pp. 251-282; “伍修權의 외교회고록(II)(1950. 1~1958. 10),” 陳維利(譯), 『中蘇研究』 제8권 2호(1984년 6월), pp. 253-280. 또한 中國 공산당 중앙당학교 산하 黨史研究室 소속 연구원으로 추정되는 姚旭이 기관지 『黨史研究』에 1980년에 실은 것을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국 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전한 30주년을 기념하며,” 李鴻永(譯), 『中蘇研究』 제8권 4호(1984년 12월), pp. 213-235로 번역 출간했다.²⁾

또한 平松茂雄(히라마쓰 시게오), 『中國と朝鮮戰爭』(東京: 勁草書房, 1988): 황인모(역), 『중공과 한국전쟁』(서울: 병학사, 1989)³⁾도 특기할 만하다.

- 1) 박두복, “중공의 한국전 개입,” 김철범(편), 『한국전쟁: 강대국 정치와 남북한 갈등』(서울: 평민사, 1989):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학회논총 제5집』(서울: 평민사, 1989): “한국전쟁이 중공정치에 미친 영향,” 『한국전쟁과 휴전체제』, 제2차 한국전쟁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전쟁연구회 주최, 국토통일원 후원, 1989, pp. 135-169: “China and the Korean War,”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중공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연구회(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 2) 한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는 미국 내쇼날아카이브 북한 노획 문서에 의존하여 『한국전쟁기 중공군 문서』 전4권을 2000년에 간행했는데 중국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 3)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원인 그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의 『국제문제』 1977년 8월호에 “朝鮮戰爭の開戦と中國: 中共朝鮮人部隊の役割”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글은 “한국전쟁의 개전과 중국: 중공계 조선인부대의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김동춘(편역), 『한국현대사 연구』(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249-268쪽에 번역되었으며 그의 저서 2장에도 실려

또한 宋在卿, “中國의 韓國戰 介入의 內政的 要因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91도 선구적 국내 업적이다.

한편 정토응은 한국국방연구원(편), 『한국전쟁의 현대전략적 조명』(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88)에서 “복진작전과 중공군 개입평가”를 발표했는데 『군사』 제20호(1990)에 재수록했다. 또한 황병무는 김철범(편),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서울: 을유문화사, 1990)에 “한국전쟁과 중국의 외교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병주,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그 영향,” 한국국제정치학회(편),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국제정치논총특집』(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년 6월), pp. 233-253는 본 연구의 주제와 일치하므로 언급할 만하다.

1990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전쟁연구회는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주제로 제2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는데 모두 5개의 분과 중 제4분과가 ‘중공과 한국전쟁’이었다. Jonathan D. Pollack의 “중공, 중소동맹, 한국전쟁”(『사상』 1990년 봄호에 실림), Francois Joyaux의 “한국전쟁기간 중 중국군의 개입,” 伊豆見元の “미중정책과 한국전쟁,” 翟志海(Zhai Zhihai)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에 대한 재고” 등이 발표되었다. 이 당시 중국의 참전 문제에 대한 연구는 한국이 아닌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자이의 논문⁴⁾이 한국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 인상적

있다. 이외에 朱建榮, 『毛澤東의朝鮮戰爭: 中國が鴨綠江を渡るまで』(東京: 岩波書店, 1991, 개정판 2004): 주지안롱(朱建榮),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각수(역)(서울: 역사넷, 2005)도 주목할 만하다.

- 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China Studies Quarterly*, No. 121(March 1990), pp. 94-115로 서방학계에 최초로 소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국내학계에 반복해서 발표되었다.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편),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韓國 戰爭의 진상』(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60-196: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제임스 매트레이(편), 『韓國과 냉전』(서울: 평민사, 1991), pp. 235-264: Hao Yufan and Zhai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History Revisited,” Kim Chull Baum and James I. Matray, eds., *Korea and Cold War: Division, Destruction, and Disarmament* (Berkeley, California: Regina, 1993).

이었다.

김계동 교수는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 전쟁기원과 중국의 참전과정,” 『통일문제연구』 제2권 2호(1990년 여름)을 발표했는데 10년 후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을 간행하면서 7장을 “평화중재, 회복정책과 중국의 개입” 부분에 할애하여 치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신현은 “중국의 참전 배경-원인 및 영향”을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편), 『한국전쟁의 이해: 한국전쟁 발발 40주년 논집』(서울: 역사비평사, 1990)에 발표했다.

한편 전쟁기념사업회는 『한국전쟁사』, 전6권을 행림출판사에서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완간했다. 집필위원은 류재갑, 김학준, 박상섭, 김점곤, 김부기, 황병무, 김철범 등이며 각권의 부제는 1권: 요약통사, 2권: 전쟁의 기원, 3권: 북한군침공과 한국군방어, 4권: 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5권: 중공군 개입과 새로운 전쟁, 6권: 한국전쟁의 영향 등이다. 중국의 개입이 전6권 중 한 권을 차지할 정도로 이 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Edwin P. Hoyt는 *The Day the Chinese Attacked, Korea, 1950: the Story of the Failure of America's China Policy*(New York: McGraw-Hill Pub. Co., 1990)를 저술해 중국 참전을 미국의 대중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또한 전사학자 Roy Edgar Appleman은 그의 한국전쟁연구 5부작 중 하나인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College Station, TX: Texas A & M University Press, 1989)에서 내어놓았는데 이는 Texas A & M University Military History Series의 11권 제책이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미국에서의 연구가 특기할 만하다. Chae-Jin Lee and Doo-Bok Park, “China and the Korean War,”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Stanford: The Hoover Institute, 1996), pp. 7-58;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조성훈 박사는 후자의 책을 “마오쩌둥의 군사사상이 한국전쟁에 미친 영향,” 『해외한국학평론』 2(서울: 일조각, 2001), pp. 103-129로 서평했다.

이러한 研究들은 기존의 研究 수준을 한 차원 더 심화시킨 것이다. 화이팅은 中國 參戰의 배경을 외부의 안보적 동기에서 구했는데, 첸지안⁵⁾과 장슈광 등은 모두 中國參戰의 中國 국내정치적 연원과 파급효과 등에 주목하고 있다. 송재경도 기존의 연구가 냉전 출현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중국의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內政的 요인도 개입의 주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후 내부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주의체제의 정비, 毛澤東 체제의 확립과 당시 경제적-군사적으로 필요한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필요성 등이 內政的 요인이라는 것이다.⁶⁾ 또한 池在運 교수는 “中國의 韓國戰爭 參戰決定에 關한 研究,” 『中國研究』 제17호(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국연구소, 1996), pp. 29-51에서 중국자료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참전결정이 거의 毛澤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A. V. Vorontsov, “어떻게 해서 1950년 한국전에 중국의용군의 개입이 이루어졌는가?” 『국제고려학』 제5호(1999년): 박동찬, “한국전쟁과 중국의 참전결정,” 『전사』(1999년 12월), pp. 111-146 등도 중국과 소련의 자료 공개현황에 부응하고 있는 연구들이

5)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미국에서의 연구로 1980년대에 출간된 다음 연구도 특기할 만하다. Lawrence Stephen Weiss, *Storm and the Cradle: the Korean War and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53*(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6) 宋在卿, “中國의 韓國戰 介入의 內政的 要因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991, p. i. 그는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연계이론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다.

다. 또한 이공환 석사는 “中國의 韓國戰 參戰 決定 研究: 既存研究의 批判的 檢討,”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1999에서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 탈냉전기 논의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한편 2000년 10월에 한중 한국전쟁관련 국제학술회의가 열리는 등 한중간의 학술교류가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중국 참전 연구가 산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0) 중 “제3장 한국전쟁과 북한-중국관계”에서 중국의 참전결정과정과 전쟁 수행을 다루고 있다.⁷⁾

이완범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중국-러시아 자료의 비교를 중심으로」(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Declassified Materials and the Chinese Documents),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2000년 여름) 외에 미국과의 대결을 주저했던 소련과 중국: 중국의 한국전 참전-S. 곤차로프(외), 미덥지 않은 맹우들: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해외한국학평론』 2(서울: 일조각, 2001)⁸⁾; 이완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한국의 연구성과, 자료와 논점,” 『한국전쟁 중 한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2001년 10월 25일, 39-60쪽을 발표했다.

沈志華, “蘇聯과 韓國戰爭: 러시아 비밀 해제 당안 속의 역사 진상,” 『現代北韓研究』 3(2000), pp. 11-91; 楊奎松, “中國의 조선 출병 시말,” 『現代北韓研究』 3(2000), pp. 93-148 등은 한국전쟁연구회가 주최한 1999년의 비공개 학술회의 결과물로서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되는 중국의

7) 이종석, “한국전쟁과 북한-중국관계,”(I), 『전략연구』 통권15호(1999년 2월), 222~251 쪽; 이종석, “한국전쟁과 북한-중국관계,”(II), 『전략연구』 통권16호(1999년 7월), 228~260쪽이 증보되어 수록되어 있다.

8)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의 서평이다.

학문적 업적이었다.

또한 2000년 10월 중국 단둥에서 개최된 한국전쟁50주년 한중학술회의의 발표 논문 대부분이 박두복(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백산서당, 2001년 6월 30일)으로 발간되었다. 당시 발표된 중국측 논문 12편에서 선정된 5편의 논문과 한국측 논문 11편 중 선정된 10편을 가지고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다. 제1부는 한국전쟁의 국내외적 배경으로 김기조 박사의 「한국전쟁의 근인이 된 열강에 의한 한반도 분할과정: 한국전쟁에서의 스탈린의 주도적 역할」과 양영조 박사의 「북한의 화전 양면정책과 그 성격(1948-1950)」, 김명섭 교수의 「6·25전쟁 직전의 ‘에치슨선언’에 대한 재해석: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 서주석 박사의 한국전쟁을 전후한 한반도의 국제관계 등이 실려 있다. 제2부는 중국 국내정치와 참전으로 박두복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개입결정의 피동적-능동적 측면, 章百家 교수의 「위기처리 시각에서 본 항미원조 출병과정, 이완범 교수의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 沈志華 연구원의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50년 후 한국전쟁 역사에 대한 고찰과 회고, 楊奎松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등이 있다. 마지막 제3부는 중국 참전과 국제정치이다. 온창일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전략, 김계동 교수의 「중국의 한국전 개입에 대한 영국의 정책, 牛軍 교수의 한국전쟁에서 중-미 양국 결정에 대한 비교연구, 李丹慧 연구원의 「38선과 17도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중-미 정보소통 비교연구, 조성훈, 한국전쟁의 세균전쟁 비판」 등이 실려 있다. 또한 김기조, “미-중-소 관계의 진전과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 미국과 중국은 그 전쟁을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나?” 『한국전쟁 중 한국의 참전전략과 포로문제』, 한-중 국제학술세미나, 2001년 10월 25일, 61-80쪽도 특기할 만하다.

국외의 업적으로는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1977년 “미국의 對中-對韓 정책 연구, 1947-1950”⁹⁾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William Whitney Stueck, Jr

가 1995년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들 수 있다. 이 책은 1999년 일본의 明石書店에서 『朝鮮戰爭：民族の受難と國際政治』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으며 2001년에 김형인-김남균-조성규-김재민 등에 의해 『한국전쟁의 국제사』라는 제목으로 국역되었다. 이 책의 3장이 “유엔의 반격과 중국의 개입”이다. ‘맥아더의 오판,’ ‘중국의 참전으로 당황하는 미국,’ ‘미-중 충돌은 방지할 수 있었는가?’ 등이 다루어져 있다. 또한 Richard C. Thornton, *Odd Man Out: Truman, Stalin, Mao,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Brassey’s, 2000)도 훌륭한 업적이다.

한편 중국 장군들의 회고담을 번역 편집한 것으로 Xiaobing Li, Allan R. Millett, Bin Yu eds. and trans., *Mao’s Generals Remember Korea*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이 있다.¹⁰⁾ 한편 沈志華(主編), 『蘇聯歷史檔案選編』 第26卷(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沈志華(編),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全3卷(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史料叢刊, 2003)을 편집했던 센지후아의 업적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SHEN Zhihua, “The Discrepancy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A Chinese Scholar’s Reply,” translated by CHEN Jia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8-9 (Winter 1996/1997)을 저술한 이래 沈志華, 『毛澤東-斯大林与 朝鮮戰爭』(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3)을 간행했다.

9) 이 논문은 *The Road to Confrontation: American Policy toward China and Korea, 1947-1950*(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1)로 출간되었다.

10) 한편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2)는 중국과 소련의 공군 작전에 대한 책으로 Texas A & M University Military History Series 80호이며 Patrick C. Roe의 *The Dragon Strikes: China and the Korean War, June-December 1950*(Novato, CA: Presidio, 2000)은 중국참전이 이루어진 과정과 1950년 12월까지의 남진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21세기 이후로는 다음과 같은 업적이 특기할 만하다. 김옥준,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국내정치: 참전의 대내적 요인과 영향을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 제42집 1호(2002년 5월), pp. 225-250; 장시아오밍, “한국전쟁기 중국의 인식과 대응,” 『6·25전쟁과 동북아 군사관계의 변화』, 6·25전쟁 국제학술세미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6월 9일, pp. 81-102; 趙成勳, “6·25전쟁 이전 한국지도자의 중국정세 변화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1집(2004년 겨울), pp. 245-271; 조성훈, “한국전쟁시 중국군 彭德懷의 참전전략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3집(2005년 여름); 정현수, “중국 조선족의 한국전쟁 참전연구,” 『국민윤리연구』 57권(2004년 1월), pp. 241-270; 정현수, “중국자료로 본 한국전쟁: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시민정치학회보』 제6권(2003년 12월), pp. 129-166; 김경일(金景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한중관계의 역사적-지정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홍면기(洪冕基)(역)(서울: 논형, 2005).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서상문 연구원은 중국 자료를 포괄적으로 활용해 『毛澤東과 6·25전쟁: 파병 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를 간행했다.

2. 중국의 전쟁계획 참여와 물적 지원

1949년 3월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에게 남침의사를 직접 표명했으나,¹¹⁾ 스탈린은 북한의 선제공격이 아닌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남침을 허가하지 않았다.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무력공격 원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허가 대신 북한과 협의하면 서 소련은 1949년 6월부터 대남공격용 무장원조를 본격화했다. 1949년 8월

11)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2000), pp. 63-64.

북한이 대한민국과 병력 및 장비 면에서 대등한 수준에 이르자 38선 근처에서 주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8월 4일 북한은 3개 대대 병력을 동원해 용진을 공격했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용진에서 케멸직전까지 물렸다. 소련은 슈티코프 대사를 통한 김일성의 8월 12일자 개전 요청¹²⁾에 대해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했다. 9월 24일 소련공산당 중앙위 정치국은 현시점에서의 남침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북한 인민군을 강화시킬 것을 지시했다.¹³⁾ 이에 평양 주재 소련대사 슈티코프는 10월 4일 김일성-박헌영에게 전면적 대남결정의 불가를 통보했으며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¹⁴⁾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북의 전쟁 개시에 대해 검토할 정도로 사안이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북한은 1949년 10월 38선 이북에 있는 은파산 탈환에 나서는 등 이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지는 않았으나 미-소 양국의 강력한 제어로 인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며 1949년 12월부터 1950년 5월까지 중대급 이상이 동원된

12) “전연방공산당(불세비키) 중앙위원회 의사록 No. 71/191, 정치국 의사록 71호 191항목에 대한 조선주재 소련대사에 대한 훈령,” 1949년 9월 24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 75;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24 September 1949,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75-77, 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Spring 1995), p. 7;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2000), pp. 66-69; Anatoly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 기원, 과정, 종결』, 허남성·이종관(역)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p. 67.

13) “전연방공산당(불세비키) 중앙위원회 의사록 No. 71/191, 정치국 의사록 71호 191항목에 대한 조선주재 소련대사에 대한 훈령,” 1949년 9월 24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p. 74-76; “Politburo Decision to Confirm the Following Directive to the Soviet Ambassador in Korea,” 24 September 1949,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y 75-77, in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Spring 1995), pp. 7-8;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2000), p. 69.

14)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1949년 10월 4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 53.

충돌은 없었다.¹⁵⁾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 보고에 의하면 1950년 3월부터 38선 분쟁이 재개되었고 5월 5일부터 6월 16일 사이에 주당 평균 약 14건의 충돌이 있었으나 회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충돌은 없었다. 1950년의 38선 충돌은 대부분 정찰과정에서 일어난 소규모 충돌과 총격전 수준이었다. 따라서 국군은 38선 충돌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6·25직전까지 남한 내부의 게릴라 소탕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한편 1949년 5월부터 8월까지 38선 무장충돌은 실질적으로 ‘작은 전쟁’ 수준까지 고조되었다. 중대급 이상의 38선 충돌이 잠시 주춤하여 전쟁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았지만,¹⁶⁾ 북한은 소규모의 38선 충돌 지속을 통해 병력 증강, 실전급 훈련, 무장강화를 이루었으며 용진반도에서의 전투 경험을 토대로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이라는 개전형식의 창출하는 등 핵심적인 전쟁계획과 전쟁관을 수립했다.¹⁷⁾

1950년 1월 중순 김일성은 슈티코프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매우 강한 개전의지를 전달하면서 毛澤東과의 만남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주선하려 했다. 이렇게 김일성이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자 스탈린은 1월 30일 김일성의 공격에 대한 승인 의사를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러한 노선변화 이면에는 중국의 공산화(1949년 10월 1일)와 애치슨 미 국무장관의 1950년 1월 12일자 극동방위선 설정이 중요한 계기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4월 하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일성-박헌영 면담에서 스탈린은 국제 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이 통일과업을 개시하는데 동의했다. 스탈린은 오직 중국의 지도자가 동의해야만 해방과업이 개시될 수 있다고 부기했다. 또한 “이 문제의 중국과 북한 동지 간에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국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합의가

15) 정병준,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한국전쟁의 재인식』,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50주년 학술심포지엄, 2000년 6월 10일, p. 29.

16)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서울: 나남, 1996), p. 621.

17) 정병준, “1949-50년 38선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계획,” 『한국전쟁의 재인식』,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전쟁50주년 학술심포지엄, 2000년 6월 10일, p. 34.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¹⁸⁾ 전쟁의 확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김일성은 5월 13일 저녁 늦게 북경 中南海의 회인당에서 毛澤東과 만나 무력통일 의향을 전달하고 스탈린과의 모스크바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다만 진공을 준비하고 있던 毛澤東은 스탈린이 조선 진공에 어떻게 이처럼 쉽게 동의했는지 이해하지 못해 대화를 중단시켰다. 5월 13일 밤 11시 30분 야심한 시각에 周恩來를 로신 대사에 보내 소련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¹⁹⁾ 이에 초특급으로 5월 14일 北京에 접수된 비신스키의 암호전문을 통해 필리포프(스탈린의 가명)는 “국제정세가 변화했으므로 인하여 통일에 착수하자는 조선 동지들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는 친서를 毛澤東에 보냈다.²⁰⁾ 5월 15일 毛澤東은 김일성-박헌영과 다시 만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毛澤東은 중국은 대만해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조선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전제했다. 김일성은 3단계 계획²¹⁾을 설명하자 毛澤東은 대체로 찬성했다. 박

- 18) 비신스키, “毛澤東을 위하여: 필리포프의 편지,” 2649 No. 4058/암호전문, 1950년 5월 14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 97.
- 19) 로신, “필리포프 동지에게 즉각 보고하기 위하여,” 암호전문, 1950년 5월 13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 96.
- 20) 비신스키, “毛澤東을 위하여: 필리포프의 편지,” 2649 No. 4058/암호전문, 1950년 5월 14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 97: “Ciphred Telegram from Vyshinsky to the Soviet Ambassador in Beijing,” 14 May 1950, Archive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nd 059a, Opis 5a, Delo 3, Papka 11, list 106 in Kathryn Weathersby, “Limits to Revisionist Interpretations: New Russian Archival Materials and Old American Debates,” 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on “Rethinking the Half Century of Liberation: The Historical Trajectory and Pathway to Korean Unification,” Seoul, June 13, 1995, p. 21.
- 21) 이는 원래 1950년 4월에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제시했던 계획이었으나(“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CC of the All-Union Communist Party (Bolshevik),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in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헌영의 설명에 의하면 毛澤東은 김일성에게 일본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김일성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미국이 일본군 2만~3만 명을 파견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조선인들이 더욱 강하게 싸울 것이므로 전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²²⁾ 그런데 周恩來에 따르면 毛澤東은 일본의 참전이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김일성에게 경고했으며 일본인뿐만 아니라 미군이 직접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미국인들은 극동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지 않았으므로²³⁾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싸우지 않고 중국을 떠났으므로 한국에서도 그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²⁴⁾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p. 44) 러시아가 제공한 문서에 기반해 작성된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5월 15일, p. 26,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1953. 8)』(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에는 “김일성은 북한이 3단계 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김일성이 소련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인 것처럼 간주하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측이 전쟁계획을 교시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바자노프 부처가 인용한 원문서에는 “누가 도발했는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웅진반도의 적을 공격한다는 김일성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나오므로 적어도 3단계(①38선 특정지역으로의 병력집중, ②위장평화공세, ③웅진에서의 개전, 국지전의 전면전화)의 마지막 단계인 웅진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김일성의 아이디어일 가능성도 있다.

- 22) “Roshin’s cable to Stalin,” May 15, 1950,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p. 55.
- 23) 아마 에치슬라인에 근거를 둔 설명이 아닌가 한다.
- 24) “Roshin’s cable to Stalin,” May 16, 1950,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p. 55.

毛澤東은 김일성에게 만약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다면 소련은 참전이 어렵겠지만 자신들은 병력을 파견해 돕겠다고 약속했다.²⁵⁾ 제국주의가 38선을 넘는다면 반드시 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²⁶⁾ 毛澤東은 1949년 5월 상순 북경에 파견된 특사 김일에게 “필요시 북조선을 돕기 위해 중국군을 파견할 수 있다고 이미 언급했었으므로 파병 약속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중국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이 미국과 38선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당사자였으므로 이를 분쇄하는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음에 비해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해 아무런 국제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할 경우 직접 병력을 파견해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련은 미국과의 3차대전을 회피했고 중국을 대신 동원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전쟁 개전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도덕적인 간접 지원과 미국이 참

25) 1950년 5월 15일, “한국전 문서요약,”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 p. 26. 그런데 沈志華 선생은 2000년 10월 24일 丹東에서 개최된 한중학술회의 석상에서 로신과 중국인의 회고에 의하면 이 당시 중국의 동의와 약속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보기에는 격론은 있었지만 중국은 동의했고 개입 약속도 했다.

26) 楊奎松, “중국의 조선출병 시말,” 『현대북한연구』 3(2000), p. 105. “필리포프가 周恩來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암호전문,” 1950년 7월 5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 79에는 “적군들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게 되는 경우 북쪽에서 의용병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중국 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다.

27) 이 회답에서의 毛澤東의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엇갈리는 설명이 있다. 첫째 김일성이 슈티코프에게 말한 것에 토대를 둔 전문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1949년 5월 15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p. 18-20에는 毛澤東이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일종의 참전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毛澤東이 코발레프(Kovalev) 주중 소련 연락관에게 말한 것에 토대한 “코발레프가 필리포프에게,” 1949년 5월 18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p. 21-22에 의하면 중국은 비교적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코발레프의 회고는 다음에 있다. Ivan Kovalev, “The Stalin-Mao Dialogue,” *Far Eastern Affairs*, No. 1(1992), pp. 100-192; No. 2(1992), pp. 94-111.

전할 경우 참전한다는 약속 외에 물리적인 직접 지원도 했는데 이는 북한 전쟁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은 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내전 기간 동안 인민해방군내에서 중국을 도왔던 조선인들의 조국 북한을 원조할 병력의 여유가 생겼고, 북한 또한 이를 당연하게 원하고 있었다. 만주가 어려울 때 조선인들의 투쟁은 공산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는 호혜적인 지원이었다. 중국은 참전하면서 상호의무가 먼저이며 국경방어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²⁸⁾ 1948년 2월 중국 인민해방군내 李紅光 지대의 1만 명의 부대가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기 위해 귀환했다. 1949년 7월~8월에 중국 瀋陽과 長春에 주둔하던 인민해방군 제4야전군 166사단과 164사단의 조선인 병사들이 북한으로 들어와 각각 1만 명 수준의 조선인민군 제6사단과 제5사단에 개편되었다. 林彪는 중국인민해방군 산하에 1만 6,000명 이상의 조선인 병력이 있음을 통보하는 毛澤東 명의 전문을 1950년 1월 8일 모스크바에 타전했다. 다음 날인 1월 9일 김일성과 슈티코프는 중공군내 한인병력의 이동문제에 대해 회담했다. 김일성도 중국무역대표부를 통해 중국정부의 편지를 받은 상태였는데 편지의 내용은 북한정부가 희망하면²⁹⁾ 조선인병력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물론 동의하면서 현재는 북한에 배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4월까지 이들을 중국에 잔류시키도록 요청했다. 스탈린은 3개 사단의 추가편성에 대해 2월 9일 구두허가를 내렸고 3월 14일에는 문서로 허가했다.³⁰⁾ 그 직

28)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 김동노(외역)(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399.

29) 1945년 해방 직후 조선의용군의 입북시 소련군의 무장해체 후 추방을 중국은 연상했으므로 중국군 내 조선인 병사의 귀환에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해방직후의 사건은 김일성 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친중국적 무장력이 입국하는 것을 소련이 제어한 것이며 1949-1950년에는 김일성 체제가 확실히 구축되었고 전쟁도 준비해야 하므로 중국내 조선인 부대 병력이 북한으로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기했다고 할 수 있다.

30)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1월 8일, p. 19,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1953. 8)』(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모스크바에서 슈티코프 대사에게,” 1950년 1월 8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기본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후 중공군 내 마지막 한인사단의 입북이 추진되었다. 결국 1950년 4월에는 중국군 최정에 부대인 독립15사 부대원 약 1만 4,000명이 이동을 개시해 5월 초 원산으로 들어와 조선인민군 제7보병사단을 형성했다.³¹⁾ 이와는 별도로 같은 시기에 약 3,000명의 병사가 들어와 인민군 제4사단 제18보병연대가 되었다. 1949년 7월~8월의 2만 여명과 1950년 5월의 17,000명 등 총 37,000명 이상의 전투로 단련된 정예 병력이 북한인민군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또한 1950년 2월 중국 제16군 제155사단은 북한으로 돌아와 조선인민군 제7사단이 되었으며 중국 출신의 비정규 부대들이 돌아와 1950년 3월 제10사단을 새로이 구성했고 1950년 2월과 3월에 4~5만 명이 귀국했다는 통계도 있다. 훨씬 더 많은 조선인 병사들이 1950년 5월 海南島 탈환을 위한 '최후의 전투'까지 싸웠으며 6월에 전쟁이 시작되서야 돌아왔다는 설도 있다.³²⁾ 이들 조선인 부대의 귀환은 북한군대의 병력수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제고시켰다. 완전무장부대의 귀국은 전쟁발발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³⁾ 커밍스는 중국내전에 참가했던 15만 명의 한국인이

외무부, n. d.), p. 58: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2월 9일, p. 22,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1953. 8)』(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1950년 2월 9일, 『한국전쟁(1950. 6. 25) 관련 러시아문서: 보충문헌, 1949-53』(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n. d.), p. 47: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3월 14일, p. 22,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1953. 8)』(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31) 자이 지하이,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 결정," 김철범(편),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한국 전쟁의 진상』(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68에는 김일성의 1950년 1월 요청에 따라 당시 인민해방군에 소속됐던 한국계 중국군(완전무장한 1개 사단과 여단)을 보내는 것만으로 김일성을 도왔다고 나와 있다. 한편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명지출판사, 2000), p. 282에 의하면 1950년 3월에 중국 남창에서 정주 집결하여 4월초에 원산 도착 후 12사단으로 개편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부대 이외에 1949년 7월에 166사단과 164사단이 각각 심양과 장춘에서 신의주와 나남에 도착하여 인민군 6사단과 5사단이 되었다고 한다.

32)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 김동노(외역)(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 338.

33) 딘 러스크는 중국이 남침 몇 달 전부터 중국 북쪽에 있는 부대를 구성 구석 뒤져서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인 조상을 둔 군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북한군에 보냈다는 사실(중국군

1949년과 1950년에 귀환하게 되자, 김일성이 이들을 활용하여 소련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얻어내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양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자율성을 얻게 되기를 기대했다는 것이다.³⁴⁾ 실전경험이 풍부했던 그들은 최전방에서 용감하게 싸워 초반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비록 별다른 사전위임이나 자문은 없었다 할지라도 1950년 5월 북한의 군사·정당대표단이 중국 瀋陽에서 중국측 대표단과 군사사항에 관한 토의를 가졌다는 사실³⁵⁾도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1950년 5월 현재 북한군은 10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소련으로부터 이양 받은 군수물자로 이들을 무장시킨 상태였다.

당시 남한은 아직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병력·장비가 열세였다. 남한은 10만에 이르는 병력은 갖추었으나, 장비는 빈약하여 북한의 군사력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상태였다. 더구나 예비군도 없이 8개 사단 중 4개 사단은 후방에 배치되어 제주4·3사건, 여·순10·19사건 등 게릴라 소탕작전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일성은 1950년 4월 초 조선노동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 무력통일안을 확정시키는 한편, 침략 계획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북통일최고입법회의의 서울 개최,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평화공세를 벌였다.

1950년 6월 16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침공작전계획(1개월을 기한으로 한 3단계 계획안³⁶⁾)을 모스크바에 보고했다. 김일성은 슈티코프에게 전투행위

포로로부터의 심문 내용으로 확인) 등에 주목하면서 중국이 1950년 6월 공격의 공범자이거나 혹은 이 공격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딘 러스크, 『딘 러스크의 증언: 냉전의 비망록』, 홍영주-정순주(역)(서울: 시공사, 1991), p. 111.

34)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Chapter 11 North Korea's China Connection," pp. 355-356, 376.

35) 조영환, "한국전쟁의 개전시 중·소의 역할: 중-소분쟁의 기원, 전쟁과의 연계," 김철범(편), 『진실과 증언』(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281.

36) "한국전 문서요약," 1950년 6월 16일, p. 28,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1949. 1-1953. 8)』(서울: 대한민국 외무부, 1994).

를 6월 30일쯤에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월 29일에 말했으며,³⁷⁾ 6월 21일에는 총공격에 선행된 웅진반도에서의 국지전보다는 6월 25일 쏘 전선에서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³⁸⁾ 스탈린은 21일의 즉각적인 회답에서 쏘 전선에서의 즉각적 진군에 대해 지지했다.³⁹⁾

북한은 1950년 6월 16일 남조선로동당 총책 김삼룡-이주하와 조만식 선생을 교환할 것을 제의했지만 이는 자신들의 전쟁 발발을 은폐하려는 위장 평화공세였다. 따라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이전의 남북갈등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새로운 상황으로 국면 전환이

37) D. 볼코고노프, 『스탈린』(서울: 세경사, 1993), pp. 459-462; 와다 하루끼, 『한국전쟁』, p. 85.

38) 1950년 5월 29일, 1950년 6월 21일, “한국전 문서요약,”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 문서』(서울: 외무부, 1994), pp. 27-28; 바자노프(외), 앞의 책, pp. 75-76. 위 자료를 토대로 한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소련에 남침일자를 통고하지 않아 소련을 경악시켰다는 시몬스(Robert Simmons)식의 ‘소련경악설’이 여지없이 몰락한다는 것이다.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London: The Free Press, 1975). 시몬스가 애초부터 제시하고 있는 것은 소련이 전쟁발발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일 뿐, “소련이 몰랐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아니었다. Robert Simmons, 『한국내전』 기광서(역)(서울: 열사람, 1988), pp. 154~155. 시몬스의 가설에 대하여 이즈미 하지메(伊豆 見元)는 지지하며(이즈미 하지메,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단계”: 김동춘[편역], 『한국현대사연구』[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스투엑은 비판했다. William Stueck, “The Soviet Un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World Politics*, Vol. XXVIII, No. IV (July 1976). *Khrushchev Remembers*, with an introduction, commentary and notes by Edward Crankshaw, translated, & translated and edited by Strobe Talbott (New York: Bantam, 1971), p. 402에는 예정된 시각까지 알고 있었다고 나오며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 공개된 소련문서에도 전쟁계획이 소련에 통보되었다고 나와 있다. 즉 김일성은 잘 짜여진 계획대로 진행시켜 소련당국자를 결코 놀라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일성의 ‘쏘전선에서의 진격’은 기존의 3단계 계획안의 웅진에서의 진격과는 다른 것이었다.

39) 바자노프(외), 앞의 책, p. 76: “Stalin cable to Shtykov,” June 21, 1950,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in Evgeni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Based on Secret Soviet Archives,” Completely Rewritten and Edited by Dr. & Mrs. Tong-chin Rhee, p. 63.

이루어지는 계기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한국군의 복침을 알리는 내무성 보도를 통해 “38선 전역에서 1~2km 침입한 국방군을 단숨에 격퇴하고 당일로 전지역에서 5~10km를 진격했다”고 주장했다.⁴⁰⁾ 그러나 38선 전역에서 선제공격을 당한 측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공격을 가해 5~10km나 전진할 수 있을까? 따라서 복침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3. 중국의 참전

1950년 9월 15일부터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유엔군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유엔군의 반격은 38선을 북진하면서까지 이루어졌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의 독단으로 감행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한 후,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戰前 원상회복이라는 전쟁 목표를 넘어서서 10월 8일 38선 북진을 단행했다. 트루먼은 “중국군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의 판단을 믿어 유엔군의 북진을 계속 지지했다. 1950년 10월 중국군이 개입한 후 38선 이남을 넘어 계속 진공하여 1951년 1월 20일 유엔군이 재반격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중국군의 인해전술이 성공을 거두었다.⁴¹⁾

毛澤東은 남침 계획안 최초 수립 때에는 金日成-스탈린과 직접 공모하지는 않았으므로 물적 지원을 제외한다면 개전 초기에는 소련과 비교하여 신중하고 消極的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나, 美國 介入 이후에는 1950년

40) 『로동신문』, 1950년 6월 26일.

41) 그런데 박태균, 『한국전쟁』(서울: 책과 함께, 2005)에 의하면 장진호 전투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중국이 인해전술을 구사했으므로 중국이 시종일관 인해전술을 구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다는 것이다.

5월 15일 約束에 의거 다음과 같이 中國軍을 派遣하게 되면서 積極的이 되었다.

中國의 촉각을 자극한 최초 사건은 美國의 介入 그 자체가 아니라 美國이 1950년 7월 中國본토와 臺灣 사이에 제7함대를 배치시킴으로써 中國 내전에 다시 介入하고 臺灣해협을 '중립화'⁴²⁾시키기로 決定했다는 것이었다.⁴³⁾ 臺灣을 배제시킨 애치슨라인의 對中宥和의 태도에 한편으로는 안도하였던 中國은 다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⁴⁴⁾ 中國은 美國이 6·25전쟁에 즉시 介入하고 臺灣해협을 봉쇄하자마자 美國의 介入 의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中國 대륙 전체에 있다고 간주했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쟁이 대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만해협에 함대를 파견했다고 정당화했지만 중국은 이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았다. 중국은 소련의 공식 논평이 나오기 하루 전인 1950년 6월 27일 미국 개입을 비판했으므로 소련보다 더 즉각적이며 적극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맥아더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응징이 한반도에만 집중되어서는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효과가 없으므로 이 기회에 국민당군을 동원하여 中國 본토를 습격하든지, 미군기가 만주를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확전 주장은 논의만 되었을 뿐, 세계대전을 우려한 국무부가 반대하여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으나 美國의 介入으로 민감하게 변했던 中國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美國이 戰爭목표를 '원상태로의 회복'에서 '한반도 전체를 친미정부 하에

42) 이 말에 대해 중국의 지도부는 '명실상부한 중립화라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가지기도 했다.

43)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22, No. 574(3 July, 1950), p. 5.

44)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편),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韓國 戰爭의 진상』(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69. 毛澤東은 미군이 최종적으로 국민당을 구하기 위해서 中國내전에 참가하기로 決定할 것이라고 믿었다.

통일시킨다'로 변경하여 38선을 돌파하게 되자 양상은 심각해졌다. 처음 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中國이나 蘇聯이 介入할 징후가 없으면 미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1950년 9월 29일 트루먼은 그 건의를 승인했으며 맥아더에게 戰爭 수행 권한을 주었다.⁴⁵⁾ 中國은 유엔군이 38도 분계선을 넘어 설 기미를 보이자 가장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 국제사회에서도 美國의 38선 복진은 의외로 받아들여졌으며 中國의 자위권 발동에 대해 동정하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9월 30일 周恩來는 "中國인민은 결코 외국의 침략을 용인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이웃 국가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 침략을 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경축 국경절 대회에서 경고했고,⁴⁶⁾ 10월 2일(中國 시간으로는 10월 3일 아침)에는 파니카르(Sadar Panikkar) 인도대사에게 "만일 美國 군대가 北韓을 점령한다면 中國은 戰爭에 介入할 것"이라고 통고했다.⁴⁷⁾ 그러나 美國의 애치슨 국무장관은 周恩來가 "권한 있는 대변인이 아니다"면서 중국

45) John W. Spanier, *The Truman-Mac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 (New York: W. W. Norton, 1965). 10월 15일 트루먼-맥아더의 웨이크 섬 회담에서도 맥아더는 소련과 중국의 참전 가능성을 부인하고 그들의 능력자체를 거의 무시했다. 맥아더는 트루먼의 중국 개입 가능성 질의에 대해 중국이 개전 이후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참전했다면 결정적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과소평가했다. 중국은 만주에 30만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직 5만~6만의 병력만 압록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고 공군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만약 중국이 평양까지 내려온다고 시도한다면 오로지 최악의 살육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bstance of Statements made at Wake Island Conference on 15 October 1950," *FRUS*, 1950, Vol. 7, pp. 948-960. 이러한 태도는 전쟁에 대한 극도로 낙관주의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46) 중국 해방군화보사(편), 『그들이 본 한국전쟁 1: 항미원조(抗美援朝)-중국인민지원군』, 노동환(외역)(서울: 눈빛, 2005), p. 39; *FRUS*, 1950, Vol. VII, pp. 848-849, 851, 858.

47) 자이 지하이, "中國의 韓國 戰爭 參戰 決定," 김철범(편), 『진실과 증언: 40년 만에 밝혀진 韓國 戰爭의 진상』(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71. 10월 1일 周恩來는 네루 인도 수상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으며 10월 8일에도 파니카르를 만났다. 周恩來, 『周恩來外交文選』(北京, 1990), pp. 25-27.

정부의 공식적인 성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트루먼 대통령도 周恩來의 위협을 단순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국공내전으로 지쳐 참전할 능력도 여력도 없는 중국이 유엔의 태도를 탐색하기 위해 단순히 공갈하거나 허세(bluffing)부리는 것이라고 미국은 평가했다.⁴⁸⁾ 周恩來의 경고에 담긴 진의를 해석하기 위해 동원된 일본 해군 제독이자 외교관인 노무라 장군은 그 경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非韓國軍이 38선을 넘는다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맥아더 사령부의 정보담당관 윌로비(Charles Wiloughby) 장군은 노무라의 분석이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⁴⁹⁾ 미국인들은 파니카르가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며 毛澤東을 옹호하는 쪽으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⁵⁰⁾ 제썸(Phillip Jessop) 국무차관과 러스크(Dean Rusk)는 파니카르가 “어떤 숨겨진 동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노선을 일시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파니카르의 ‘음흉한 성격’은 “그의 삼 모양의 수염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⁵¹⁾ 미-중간의 직접 채널 상실

48)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W. W. Norton, 1969), p. 452. 당시 중국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 가능성을 과소평가 했었다. 박두복,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 한국전쟁 연구회(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서울: 백산서당, 2000), p. 155. 1950년 10월 7일 유엔관리하의 한반도 통일이 유엔의 결의로 통과되자 미국은 중국이 유엔에 도전하여 한반도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은 인천상륙이전에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염려했지만 상륙 이후 승세에 도취하여 중국은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소련이나 중국이 개입 의사가 있었다면 인천상륙 이전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0월 15일 웨이크섬에서 트루먼을 만난 맥아더는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회박하다고 언급했다. 정토웅, “북진작전과 중공군 개입평가,” 『군사』 20 (1990), p. 207.

49) 그러나 국무부는 다르게 평가했다. 알렉시스 존슨(U. Alexis Johnson)은 한국군만을 북진시킬 것을 제안했다. *FRUS*, 1950, Vol. VII, pp. 848-849, 864-866. 그러나 전투 준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 북진을 연기할 수 없었다.

50)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337.

51)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Princeton: Princeton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었으며 메시지 전달자로 파니카르를 선택한 것은 중국의 잘못이었다.⁵²⁾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1949년 여름 파니카르를 경유한 중국의 경고는 허풍으로 끝났으므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다.⁵³⁾ 맥아더는 중국이 실제로 참전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의도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워싱턴은 만주에서 북한으로 많은 기갑부대의 행렬이 이동하고 있다는 공군 정찰에 바탕을 둔 보고서를 받았지만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⁵⁴⁾ 중국의 계속된 경고에 대해 미국은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기는 하였으나, 중국이 본토의 통일을 이룩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대만문제를 지니고 있는 만큼 한국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맥아더 역시 이러한 낙관론을 가졌고, 조만간 한반도가 통일되어 평화가 회복되리라고 확신했다. 9월 20일 CIA는 중국 의용군이 참전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그려보았고, 한 달 후에는 만주 부대들이 한국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다수의 보고서에 주목하기를 했다. 그렇지만 11월 1일 CIA 스미스(Walter Bedell Smith) 국장은 중국은 “필시 미국의 만주침공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전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의 안전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립하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⁵⁵⁾ 미국은 한-만 국경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중국의 이해를 보장한다면 중국의 전쟁 개입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 비해 중국은 북위 38도선 이북을 그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완충지대로 간주했다.

University Press, 1990), pp. 738-745.

52) 李丹慧, “38도선과 17도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중-미 정보소통 비교연구,” 박두복(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백산서당, 2001), p. 448에서는 중국이 미국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파니카르를 정보 전달자로 선택한 것은 실책이었다고 평가된다.

53)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pp. 211-212.

54)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p. 191.

55)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 김동노(외역)(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pp. 396-397.

김일성이 미국의 즉각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했듯이 당시 미국은 중국의 참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여 확전을 감행했던 것이다.

미국이 개입하고 북한이 밀리자 중국은 북한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참전을 준비했다. 그렇지만 1950년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중국의 毛澤東 등 지도부는 미국과의 대결을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련의 지원도 확실하지 않아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다. 다음과 같이 장고를 거듭했던 것이다.⁵⁶⁾ 1950년 10월 1일 스탈린이 毛澤東에게 參戰勸誘에 관한 電文을 보냈으므로 10월 2일 새벽 毛澤東은 스탈린에게 參戰한다는 電報의 草案을 作成했다. 그러나 10월 2일 오후 中共黨 中央書記處 擴大會議에서 參戰 反對 意見이 優勢하자 10월 2일 밤 毛澤東은 주중 소련 대사 로신에게 參戰保留 決定을 통보했다. 그러자 10월 5일 스탈린은 毛澤東에게 參戰을 보다 강하게 권유했다. 10월 7일 유엔군의 38도선 북상을 허용하는 서방측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자 10월 8일 毛澤東은 人民志願軍 結成과 出動에 대한 待機 命을 중국군 내부에 公布했다. 그러나 10월 11일 스탈린과 周恩來는 중국의 參戰을 保留하고 北韓政府를 中國으로 退却시키는 것에 대해 合意했으며 10월 13일 스탈린은 스탈린-周恩來 合意를 金日成에게 傳達했다. 한편 10월 13일 下午에 毛澤東은 中共黨 政治局 會議에서 參戰을 決定하고 스탈린에게 通報했다. 이에 10월 13일(모스크바 시간)과 14일 스탈린은 中國의 參戰 決定 김일성에게 通報하고 退却 白紙化를 指示했다. 10월 14일에 毛澤東은 參戰日字를 19일로 決定했다.⁵⁷⁾

중국은 소련의 '유보적인 간청'과 북한의 적극적인 간청⁵⁸⁾이라는 외적 요

56) 이완범, "중국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과정," 박두복(편), 『한국전쟁과 중국』(서울: 백산서당, 2001), pp. 217-241.

57) 이완범, 『한국전쟁: 국제전적 조망』(서울: 백산서당, 2000), pp. 143-147.

58) 북한은 1950년 10월 1일 박헌영을 북경으로 파견해 毛澤東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일성-박헌영 연명의 친서("존경하는 모택동 동지 앞")를 전달했다. 이 편지는 중국 丹東의 항미원조전쟁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0년 서울에서 열린 다음 전

인에다가 자국의 주체적인 판단이 최종적으로 작용해 참전했다고 할 수 있다.⁵⁹⁾ 毛澤東에 대한 스탈린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은 소련이 주도하는 전쟁에 참가한 측면도 있다. 중국은 소련의 요구에 부응해서 참전했지만 종속국이 되려 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참전이였다. 소련의 정치-경제적 원조를 확보하고 만주에서 소련세력을 철저히 철수시켜 강력한 정치-경제 및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였다.

따라서 중국출병은 소련-북한 관계와 내부적인 상황인식의 복합적 결과였으며 국력의 단순한 소모였기보다는 소련으로부터 물자를 확보하여 독립을 담보하려는 '자기보전'적 의도의 혁명전략을 운용한 결과였다.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韓國戰爭은 미-중戰爭으로 전환되었다.⁶⁰⁾ 결과를 단순화시키면 中國의 參戰을 유도한 것은 美國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38선을 넘지 않았다면 중국도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중국측 학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는 중국개입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돌리려는 인식태도인 것이다.⁶¹⁾

사회와 도록, 『6·25전쟁50주년특별기획전: 아! 6·25 그때는 자유를, 이제는 통일을』(서울: 조선일보사-전쟁기념관, 2000), p. 68에 나온다. 또한 10월 8일 瀋陽에서 박일우가 彭德懷와 접촉하기도 했다. 洪學智, 앞의 책, p. 28, p. 36.

59) 파병에 반대하는 국제주의자 周恩來(미국과의 관계 개선 주장)와 파병을 주장하는 친소파 高崗과의 논쟁이 10월에 벌어졌다. 1950년 10월, "한국전 문서요약,"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 외교문서』(서울: 외무부, 1994), p. 57.

60)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61) 만약 38선을 넘지 않았다면 중국은 출병하지 않았을까? 중국의 군사령관들은 개입의 최적 시점이 미군과 동맹군들이 38선을 넘은 후라고 건의했지만 이 조건이 필요조건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았으며 인천상륙작전 훨씬 이전부터 개입을 준비했으므로 개디스는 만약 38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중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John Lewis Gaddis, *We Now Know: Rethinking Cold War History*(Oxford: Clarendon Press, 1997), p. 81; 박건영(역),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서울: 사회평론, 2002), p. 146.

4. 미-중 대리전의 전개

1950년 10월 24일 한국군 제6사단이 청천강 상류에 있는 운산(雲山)에서 중국군으로 보이는 적군에 포위되었고, 이를 구출하기 위한 미국 제1기병사단마저도 26일에 포위되어 고전하였다. 중국군은 4개군 약 50만 병력으로 고원지대를 타고 몰려 내려왔다. 아직 중국군의 진면목을 교전을 통하여 확인하지 못했던 맥아더는 자신에 차 있었다. 11월 24일 맥아더가 직접 지휘에 나서 총공격을 시도하며 방어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11월 26일 85만 명의 대규모 공세에 접한 맥아더는 미군의 단계적 후퇴를 미 합참에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 서부전선의 유엔군은 29일까지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하였고 12월 1일부터는 동부전선에서도 철수를 개시하였다. 12월 4일 맥아더는 “중국군 100만이 북한에 투입되었으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50년 12월 4일 유엔군은 평양에서 완전 철수하였고, 14일부터 24일 사이에는 동부전선의 유엔군 12만 명과 피란민 10만 명이 흥남(興南)에 모여 해상으로 철수하였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역전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군의 원조에 힘입은 북한군이 26일 다시 38선을 넘어 남진하자, 맥아더는 미국에 재차 지상지원군을 요청하고 새로운 정치적 결정과 전략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이 동조한다면 38선을 경계로 휴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면전 위협을 경계하던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반도로부터의 유엔군 철수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기정사실화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전으로 轉化된 상황에서 영국 등 서방 참전국은 미국에게 휴전을 촉구하게 되어 한국전쟁 정전을 위한 유엔 3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들이 중국과 접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미국 휴전안에 별다른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중국군과 북한군

은 1951년 1월 5일 서울에 진입하고도 군사작전을 계속했다. 당시 전선은 평택 장호원 안양 일대로 고착되었는데 이를 바로 중공군의 신정공세라고 한다.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에 거부 태도를 취하였던 것은 당시 전황이 그들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이며, 그들은 계속 유엔군을 추격하여 남진하였다. 남한정부와 민간인들은 1950년 1월 4일 다시 피란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른바 1·4후퇴이다.

1951년 1월 25일부터 유엔군은 반격을 재개하여 2월 10일 인천과 김포(金浦)를 탈환하였고 서울에 진입했으며 다음날 서울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2월 4차공세로 다시 빼앗겼다가 국군 제1사단의 공격으로 3월 14일 완전하게 서울을 탈환하였다. 그해 7월 10일까지 소모전 양상을 띠었으며 이때 서방 참전국들은 미국에게 휴전을 추진하도록 더 강력하게 압력을 가했다. 2월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했다.

이렇게 중국군의 공세를 저지하고 38선 근방을 경계로 군사적 대치상태를 회복한 미국은 '38선 재돌파' 논쟁을 벌였다. 휴전을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미 국무부와 재돌파-재북진을 주장하는 미 군부와의 논쟁이 벌어진 것이었다. 결국 3월 24일에는 38선을 다시 돌파하였다. 이때 맥아더는 중국 북동부인 만주(滿洲)지방을 폭격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정부는 휴전을 모색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면서까지 확전을 옹호한 맥아더는 중국 공업지대 폭격을 포함한 4개 항목에 달하는 전면적 대응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맥아더와 미국정부(국무부)의 이와 같은 대립은 4월 11일 유엔군총사령관인 맥아더를 해임시킴으로써 끝났다. 미 국무부의 입장은 관철되었던 것이다.

결국 새로운 사령관 릿지웨이(Matthew Ridgway)에게 38선의 전면적 재돌파가 불가함이 통보되어 미국은 휴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중국이 참전한 후 전선이 고착상태에 빠지면서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가 불가능해졌고, 미국도 맥아더를 해임하는 등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련이 중국과 북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미국은 먼저

소련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 주소대사 케넨(George F. Kenan)과의 1951년 봄 비밀 막후교섭⁶²⁾을 거친 소련의 외상대리 말리크(Adam Malik: 당시 유엔 주재 소련대표였음)는 1951년 6월 23일 '戰場에서의 휴전'을 공식 제의했고 중국도 예전처럼 유엔가입이나 대만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곧 이를 지지하는 신속한 행동을 보였다.⁶³⁾ 남북 양측은 전쟁의 계속을 통한 상대방의 흡수통일을 추구하여 휴전을 반대하였지만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본회담이 개시되었을 때, 자신들의 대표단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5. 전쟁의 정치적 종결: 한반도 휴전체제의 성립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는 전투와 회담이 지속되었다. 휴전회담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회담이 2년여를 끝 동안 중국측은 “회담하면서 공격하고 공격하면서 회담한다”는 전법을 택하였으며 미국은 공산측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공중폭격을 가하였던 것이다.⁶⁴⁾ 군사분계선의 설정, 휴전 감시 방법 및 그 기구의 설치, 쌍방의 당사국 정부에 대한 건의, 전쟁포로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62)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131.

63) Barton J. Bernstein, “The Struggle over the Korean Armistice: Prisoners of Repatriatio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3), pp. 264-265.

64) 대표적 폭격으로는 1952년 6월 23일에 이루어진 수풍댐을 비롯한 10여개의 발전소 폭격과 7~8월에 이루어진 평양 폭격이 있다. Rosemary Foot, *The Wrong War: American Policy and the Dimensions of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pp. 177-178.

양측의 의견 대립이 심해 여러 차례 회담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7월 10일 직후에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어 26일에는 의제를 합의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양군의 경계선 책정 문제가 난제였다. 이미 38선을 넘어 진격하고 있던 미군은 양군의 접촉선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주장하였으나 공산측은 38선의 원상회복을 고집했다.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8월 22일 공산측은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회담이 중단되자 전투는 다시 격렬하게 벌어졌다. 2개월 뒤 유엔군총사령관 리지웨이의 제안에 따라 10월 25일부터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북한측은 접촉선을 군사경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주장에 양보하고, 11월 27일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설치에도 동의하였다.

결국 의사일정과 휴전선 획정문제, 감시위원단 구성문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1952년 5월 포로송환 문제 - 즉 전쟁포로의 자유송환(유엔군측의 입장)이나 전원 본국 송환(공산측 입장)이나 - 만이 미해결의 난제로 남게 되었다. 유엔군측은 많은 북한군 포로가 전쟁중 강제 징집된 뒤 투항하였고, 또한 한국군 포로 가운데 많은 수가 북한군에 강제 편입된 사실 그리고 중국군 포로 가운데에는 중국에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사실들을 이유로 포로 송환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측에서는 무조건 강제송환을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휴전회담의 교착상태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2가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1952년 12월 3일 제7차 유엔총회에서 포로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송환위원회를 조직, 포로를 120일간 설득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송환하지는 결의였지만 북한측에서 반대하였다. 또 하나는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점이다. 미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모두 교체된 시점인 3월 28일 북한측에서 휴전회담 재개를 제의하여 4월 이후 휴전협정이 재개되었다. 공산측은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그들의 귀국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하였다. 4월

11일 상병포로교환협정이 성립되어 협정각서가 교환되었다. 결국 아이젠하워의 롤백정책에 밀린 공산측 양보로 6월 8일 포로의 자유송환 원칙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어 휴전협정은 사실상 매듭 지워졌다.

그러나 휴전을 시종일관하게 반대해온 이승만대통령이 6월 17일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약 2만 6천명을 과감히 석방하는 일이 벌어져⁶⁵⁾ 공산측의 강력한 군사공세를 불러일으키는 등 잠시 휴전성립에 암운을 던져 주었다.

이에 한미방위조약의 체결과 경제원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승만을 무마시켜 “휴전협정체결에 더 이상의 방해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이승만으로부터 얻어낸 미국은 마지막 고비를 넘겨 7월 22일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7월 27일 공산군 측의 북한군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3년 1개월에 걸친 승패 없는 전쟁은 끝이 났다. 남한정부는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도아래 북진을 외치며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6. 맺음말: 중국에 미친 영향

중국 공산당은 인민공화국 수립 전부터 북한에 병력을 보내 지원했으며 전쟁 결정과정에서도 파병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결국 지켰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혈맹으로서 지금까지도 북한체제 유지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6·25전쟁에 가장 큰 변화를 겪었으며 영향을 받은 주변국은 역

65) 휴전에 반대해온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9일 반공포로를 석방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온 후 18일(한국시간)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이를 버거는 rebellion이라고 규정하였다. Carl Berger, *The Korea Knot: A Military-political History*, Rev. ed. (Philadelphia,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4), p. 167.

시 중국이다. 또 하나의 북한 주변국 소련은 전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으나 이 사실을 숨겼으므로 형식적으로는 6·25전쟁과 아무 관계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많게는 1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으며 국내경제 발전의 저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을 통일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중국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탄약을 소모했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6·25에 개입함으로써 유엔으로부터 침략자의 낙인이 찍혀, 1971년 말 중화민국이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축출되고 가입이 허락될 때까지 미국 주도하의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감수해야만 했다.⁶⁶⁾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손실만을 입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이 6·25전쟁 개입으로 얻은 최대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생명선인 동북지역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완충지대인 북한이 적대적 세력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다는 것이다. 북한을 완충지대로 확보한 것은 지금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대화된 군장비와 무기 등 소련으로부터 대규모 군사-경제 원조를 받아 경제회복과 군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부적으로는 1949년 건국이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심각한 저항과 경제생활의 궁핍으로 공산당 통치에 대한 환멸과 불만이 전국적으로 만연했다. 이렇게 혼란했던 내부적 제반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국내의 정치통합과 공산정권의 공고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존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참전하여 북한을 구출해

66)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평소 중국공산당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스탈린이 중국과 미국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자신은 참전하지 않은 채 중국의 참전을 유도하는 함정을 의도적으로 파 놓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만약 한반도에서의 미·중대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1950년대 초에 미국은 중국을 승인했을 것이며 따라서 중국을 고립화시키려는 소련의 전략은 20여 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김학준, 『한국전쟁』(서울: 박영사, 1989), p. 67.

좁으로써 19세기 말 청·일전쟁 패배 이후 상실하였던 한국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6·25전쟁 이전 소련의 그것에 비하여 전무하였던 중국의 대 북한 발언권은 6·25전쟁 개입으로 말미암아 1958년 중국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까지 소련의 그것을 능가할 수 있었다.⁶⁷⁾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전쟁하여 미국을 한반도의 북부에서 축출하는데 성공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으로써 그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 관계를 구축하여 전후 북구에 참여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려하고 있다. 한반도와 인도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신생정권의 국제적 위상도 높였다. 현재도 휴전협상의 한 당사자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1953년 스탈린의 사망으로 소련은 내우외환을 겪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는 후계구도를 둘러싼 불화가 일어났으며 전쟁실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어 외부적으로는 스탈린 주도의 공산주의 진영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고 소련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스탈린에 뒤이은 흐루시초프(N. S. Khrushchyov)의 수정주의적 정책은 소련의 지위를 크게 동요시켰다. 6·25전쟁 중에 북한을 위기에서 구하여 준 것은 얼마전 김일성을 옹립하였던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는 사실은 소련에게 중-소-북한 관계 상 실질적인 심각한 타격을 제공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소련으로부터 약속된 참전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써 차후 중-소 분쟁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7. 3. 6, 심사완료일 : 2007. 6. 8)

주제어 : 6·25전쟁, 중국의 한국전 개입, 모택동, 스탈린, 휴전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War and the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Lee, Wan-bom

When Russian archives were widely open and Chinese documents had been already published on the late 1990's, a hot debate on the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was opened. The discrepancy was revealed between the Russian and Chinese version of *Mao's* 2 October 1950 message to Stalin on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While Mao made a decision not to send any troops then in the Russian version, he said Stalin to make a decision to send 12 divisions on 15 October in Chinese version.

Mao's handwriting message which exists 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entral Archives was not sent. Mao verbally delivered the reluctant message on entry into the Korean War to *Roshchin* and authorized the Soviet Ambassador to convey it to Stalin.

Due to direct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and China were originally reluctant to enter the Korean War. After Stalin discussed China's entry into war with *Zhou Enlai* from on 9 October, they agreed on the evacuation of North Korea and the retreat of Korean troops to the Northeast China. As *Mao Zedong* believed that the US control of entire Korea would pose a threat to China, he became less reluctant than Stalin. *Mao's* hesitation partially came from his calculation to receive more military help from Soviet Union such as air umbrella. Despite Stalin's reluctance, Mao made the final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on 13

67) 정진위, "북한-중공-소련의 삼각관계," 『계간 현대사』 제1호(1980년 11월), p. 201.

October 1950. Had China not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Mao* would have lost an opportunity to assume a leadership role in Asian revolutionary movement.

Key Words: The Korean War, Chinese Entry into the Korean War, *Mao Zedong*, Stalin, Armistice